베드로전서 강해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기도와 사랑으로 (벧전4:7~11)

- 반태효 목사 / 2000. 8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사는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 그리고 이 세대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번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고 방탕하게 죄악된 삶을 사는 이유는 자신의 때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경을 보면 심판이 눈앞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멸망한 롯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채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갑작스럽게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경고하셨습니다. 1백20년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세상의 연락과 정욕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흔히들 고대 국가 중 가장 화려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루 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고레스의 군대가 성문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교만히 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이들처럼 철이 없다'고 합니다. 때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철에 따라 해야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많은 외국인들과 전문가들이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투자가들은 돈을 모두 회수해간 상태에서 우리만 졸지에 당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었

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일기는 구별하고, 천기는 구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또 때를 분별하는 중요성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때를 분별하여 깨어서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처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일할 때와 놀 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라고 합니다. 즉 종말이 가까와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종말의 때에 이른 것일까요?

'2천년 전에 종말이라고 말해졌는데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은 것을 보니 이 말은 다른 뜻을 상징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역사의 끝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카운트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고등은 켜져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언제라도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이 아직 남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의 종말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요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수명이 몇십년 더 늘어난다고 해서 장미빛 인생이 보장됩니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의 세월도 어제 같고 밤의 달 같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그 해에 다른 어느 때보다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밤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많은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

모래시계를 보면 시간의 진실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생명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른 날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 오늘이 종말이라면 우리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말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늘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마지막이 이르면 그 순간부터 기도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당황하고 놀라기 쉽습니다. 어찌할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한 성도분이 얼마 전에 지방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전복될 때 정신은 멀쩡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여'라고 외쳐야 할 것 같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급할 때의 기도는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깨어 기도하라'는 권유는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그 자체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기도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합니다. 의약분쟁과 홍수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더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연락과 방탕하며 음란해지기 쉽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좋아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살다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가까웠던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은 자꾸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라

사람들은 남보다 잘 살고, 더 앞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무척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며 그분은 대야를 준비하고 수건을 준비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곳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을 당한 그 순간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잘못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이의 잘못과 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대접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면 대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아닌듯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항상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혹 오실 때 꼭 연락을 주고 오십시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고도 없이 여러 사람과 함께 갑자기 들이닥쳐도 그들은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 잘하려다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은 마르다가 일손은 없고 힘이 들어서 원망을하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되면 아무리 잘 대접해도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대접을 받을 때나 대접을 할 때는 원망없이 해야합니다. 대접은 잘못하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여러분,
대접은 곧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문을 열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남

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대접이 갖는 놀라운 역할을 봅니다. 모두가 대통령이 북에 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지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의 정상이 직접 마중을 나오고 대범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이며 대접을 하자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미덕 중에 하나가 손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을 대접하는 것은 누구라도 환영할 귀빈들을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답할 수 없는 상황의 손님, 오갈 데 없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복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삼서는 대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언급됩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손을 잘 영접하고 대접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교만해서 손을 영접하지 않고 손을 대접하는 이를 핍박했음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무엇으로 평가하겠습니까. 손님을 따뜻하게 대접하는가를 보고 평가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이 오고가기 때문에 누가 왔다가는지 잘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큰 행사 때마다 민박과 러빙핸드로 섬겨준 것에 손님들은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손님들을 대접할 때 힘은 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간증이 생겨나고 복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이며, 헌신이고, 섬김이며, 희생입니다. 섬김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희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과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그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의 정도는 그의 능력과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와 그 영향력을 아직도 끼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만 있지 않고 그 섬김에도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섬김은 축복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는 섬김이 축복이며 능력이며 영광이며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

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섬김은 능력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은사를 받습니다. 꽃동네에 가면 이런 글귀를 볼 수 있습니다. '빌어먹을 수만 있어도 축복이다'. 그 빌어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이를 섬긴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누리다보면 마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생색내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를 교만한 자세로 도와서 비굴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내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섬김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은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에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밖에 없는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영광과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없는 사람, 아무 가치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냉수 한그릇 떠다 준 것까지도 주님은 모두 기억하시고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사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짧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려워말게 하시고 근심하지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